

Journal of Military History
2026, No. 140, pp.601-612
<https://doi.org/10.29212/mh.2026..140.601>
Printed in the Republic of Korea

[군사사 신진연구]

「조선 후기 속오군 체제의 운영방식과 기능」의 작성과정

남궁승원 | 서울교육대학교 강사

1. 논문의 주요 내용

박사학위논문 「조선 후기 속오군 체제의 운영방식과 기능」은 조선 후기 지방군의 대표적 병종이었던 束伍軍이 어떠한 원리로 운영되었고 그 체제가 19세기 말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유지되었는지를 고찰했다. 속오군은 임진왜란이라는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된 임시 제도에서 출발했으나 구식 군제가 폐지되는 19세기 말까지 존속했으며 많은 인원을 보유하고 광범위하게 분포한 조선 후기 가장 일반적인 군사제도였다.

속오군은 오랫동안 제도적 붕괴의 서사로 설명되어 왔다. 그 변화는 대체로 체제의 이완과 그 기능을 대체하는 새로운 제도의 출현이라는 틀로 이해되었다. 본 논문은 이러한 설명을 대신해 속오

군 체제를 당대의 맥락 안에서 이해하고자 했으며 국가의 군제 운영 원리에 더욱 충실한 체제로 변화해 간 양상에 주목했다.

이러한 접근의 바탕에는 군대를 바라보는 관점의 문제가 놓여 있다. 필자는 군대를 전투에 투입되기 위해서만 존재하는 조직이 아니라 국가가 필요로 하는 목적에 투입할 수 있도록 조직화되어 준비된 인력집단으로 보았다. 국가가 인력을 집중적으로 투입할 만한 수요 중에 전쟁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며 그에 따라 직접적인 전투와 그에 대한 대비가 핵심 기능인 것은 분명하지만 군대의 역할은 그 이상이다. 속오군이 유지되고 운영되었던 양상 역시 이러한 시각에서 이해할 수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관점 아래 세 시기로 나누어 속오군 체제의 여러 면모를 살펴보았다. 첫째는 17세기부터 18세기 초까지 나타난 제도 정비이다. 조선은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거치며 대규모 군대의 필요성을 인식했고 속오군에는 그에 상응하는 인적 규모와 무기, 조직, 훈련체계가 구축되었다. 조선은 중앙 기관의 생산과 민간 제조를 병행해 확보한 조충을 속오군에게 지급해 상시 보유하도록 했는데 이는 자발적 훈련을 기대하는 동시에 관리 책임과 보충 의무를 부과하는 조치였다. 또한 정부는 무신란 이후 面里 행정체계와 부대 조직을 일치시키고자 하여 거주지 단위의 부대 편성을 추구했으며 이를 통해 지역 내 속오군의 자체적 운영과 소규모 부대 단위의 훈련을 기대했다. 이는 병농일치적 군제 운영을 지향한 결과였다.

둘째는 18세기 속오군에서 확인되는 병농일치 정책의 이상과 실제이다. 조선이 지향한 병농일치는 군대를 농업과 결합해 군사들이 자체적으로 운영 비용을 마련하게 하는 방식이었다. 조선은 병농일치의 현실적 변용으로 간주된 府兵制를 통해 군제를 운영하고자 했으며 이에 따라 호 단위 대표자를 正軍으로 지정하고 奉足이나 保人을 배정했다. 이러한 방식은 속오군에도 반영되어 속오군

이 호적에 직역으로 등재되고 복무 보조를 위한 보인이 지정되는 등의 정비가 시도되었다. 그러나 호적에서 확인되는 이 구조는 속오군 전체에 온전히 적용되지 못했다. 속오군의 공식적 충원 대상은 노비 및 다른 역을 지지 않는 양인이었으나 실제로는 籍外戶나 겸역자를 통해 많은 인원이 충원되었고 東伍保의 운영은 불안정했다. 속오군의 병농일치 구조는 부병제가 아니라 이후 19세기에 확인되는 다른 방식으로 추구되었다.

셋째는 19세기 속오군에서 나타난 운영방식과 기능이다. 속오군은 19세기에도 제도적으로 존속하며 실질적인 동원 기능을 수행했다. 하층민 중심 충원과 훈련 동기의 부재, 무기 보급의 불완전성과 기술적 정체는 속오군의 전투력을 구조적으로 제약했다. 그럼에도 운영 원리의 측면에서 속오군은 더욱 철저한 병농일치와 자체적 운영체계를 구축해 나갔다. 군역의 물납화가 일반화되는 가운데서도 속오군은 예외적으로 인력 제공의 역할에 고정되었으며 유지 비용은 지방재정 안에서 자체적으로 조성된 재원과 속오군 및 지역 백성을 통해 확보되어 자기완결적 재정 운용 구조를 이루었다. 거주지 단위의 편제 규정이 유지되는 상황에서 면리제는 대원의 신상 파악, 무기 관리, 인원 차출 등 다양한 실무를 담당하며 동원체계의 실질적 기반을 제공했다. 이렇게 유지된 속오군은 평시에 각종 노역에 동원되어 직접적인 노동력 수취의 대상으로 기능하는 한편 유사시 징발 체계로도 존속했다.

결과적으로 19세기 말까지 이어진 광범위한 인력 동원체계였던 속오군은 제도적으로 병농일치의 원리를 가장 충실히 구현한 군사 기구였다. 운영의 상당 부분이 자율적 영역에 위임되었고 국가는 이를 점검 및 활용하는 구조 속에서 속오군은 자체적 비용 조달과 노동력 제공, 전장 투입 등 당시 군에 요구되는 복합적 기능과 역할을 수행했다. 이러한 점에서 속오군은 조선 후기까지 실질적으

로 운영된 군사조직이자 조선시대 군역 및 군사제도의 구조와 성격을 구체적으로 드러내는 대표적 사례였다.

2. 관점과 주제의 형성 배경

필자는 오랫동안 군대와 군사제도, 나아가 군사사에 관심을 가져왔다. 이 분야는 개인적 흥미를 넘어 충분한 연구사적 가치를 가지는 주제이기도 하다. 어떠한 사회나 국가이든 스스로의 존속을 위해 군대를 필수적인 기구로 두어 왔다. 그리고 이를 만들고 유지하기 위한 국가와 사회의 움직임은 사회 전체를 움직이고 변화시키는 동력이 되었다. 군대와 사회는 상호적으로 영향을 주고 받았으며 그런 점에서 군대는 사회 전체의 역사를 들여다볼 수 있는 중요한 통로이다.

전문적 연구자로 진로를 정하고 조선 후기로 방향을 잡으면서 필자는 관심사와 연구 시대를 맞추어 살펴보고자 했다. 궁극적인 목표는 조선 후기 군사사를 분석 도구로 활용해 국가와 사회의 성격을 분석하는 것이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먼저 당대의 군대가 지닌 본질적 성격과 역할을 살펴야 할 필요가 있었다. 군대라는 존재의 성격이 명확해야 이를 통한 연구의 확장도 비로소 유효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한 지향 아래 박사논문의 관점과 주제를 설정하게 된 직접적인 계기는 필자 자신의 개인적 경험이었다. 가장 먼저 꼽을 것은 소총수로 복무하며 육군 병장으로 제대했던 군 경험이다. 군에서의 경험은 조선시대 기록에 나타나는 군대에 관한 서술을, 나아가 장기적인 붕괴와 해체로 설명되어 온 조선 후기 군사사를 다르

게 볼 시각을 만들어주었다. 조선 후기 군정 문란에 대한 설명은 당대 기록에 실린 여러 문제 제기에 근거한다. 이러한 연대기 서술이 잘못된 것은 물론 아니며 분명히 중요한 당대 사실의 여러 측면을 전하고 있다. 그렇지만 결함이 존재한다는 것과 체제가 붕괴했다는 것은 다른 이야기다. 군대가 망가지고 문제가 있다는 평가는 모든 시대, 모든 군대에서 찾아볼 수 있다. 군 경험은 그러한 문제의 보편성을 확인하는 계기였다.

훈련을 예로 들 수 있다. 필자가 복무했던 부대는 우선순위가 높은 기계화보병사단이었고 복무 중에는 연평도 포격과 김정일 사망으로 긴장이 높아져 비상 대기가 이어지고 훈련도 대폭 강화되었다. 객관적으로 상당한 훈련이 이루어졌음에도 훈련이 충분하고 잘 되었다는 평가가 상급 지휘관들로부터 내려오지는 않았다. 어느 정도가 충분한 훈련인지는 결국 기준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의 문제이다. 특히 군제를 개혁하고 훈련을 강화하려는 이들은 그 기준을 높이 설정하기 마련이다. 정치적 수사라는 성격을 띠는 연대기 기록 속 평가에서는 이러한 측면이 더욱 강하게 드러난다.

군대가 제 기능을 하지 못했다는 근거로 활용되었던 인원 및 장비와 관련된 문제 역시 마찬가지이다. 편제상 정원과 장비가 온전히 채워지는 일은 없었다. 부족한 인원의 업무는 그때그때 다른 인원이 나누어 수행했고 장비는 수량이 모자랄 뿐만 아니라 있는 것도 여러 문제를 일으키며 결코 적시에 수리되지 않았다. 이러한 모습이 군대의 붕괴를, 역할의 수행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이는 군대의 당연하고도 보편적인 모습이며 이러한 점은 과거로 갈수록 더욱 일반적이었을 것이다.

군대 운영이 문란해져 본래 기능을 잃은 지표로 자주 간주되는 노역 동원도 다시 볼 대상이었다. 군대에서 노역은 농번기 일손 지원이나 수해에 따른 제방 축조처럼 일시적 동원에 그치지 않고

일상적이었다. 평상시 정기적 훈련을 제외하고 군인들이 가장 많이 투입되는 업무는 소위 “작업”으로, 군대라는 체제의 유지를 위한 노동이었다. 군이 다양한 노역에 동원되는 사례는 현대 여러 국가에서도 마찬가지로 확인되는 일반적 양상이기도 하다.

전역 후 편입되었던 예비군도 다르지 않았다. 학생예비군훈련과 동원훈련을 모두 거쳤으나 공통점은 실제로 훈련에서 하는 것이 많지 않다는 점이었다. 예비군 훈련의 핵심은 결국 소집과 조직화의 경험에 있었다. 이는 오늘날의 예비군과 유사한 형태를 지녔던 조선시대 군대와 그 훈련을 바라보는 관점으로 이어졌다. 전투나 전쟁 준비 외의 목적에 동원되었다 하더라도, 훈련이 부실하고 장비의 보급과 관리에 문제가 많더라도, 그 조직과 인력 및 동원을 위한 제도적 구조가 이어지는 한 그것은 여전히 군대였다.

관점을 형성한 또 하나의 계기는 미국에서의 경험이었다. 필자는 매사추세츠 보스턴에 위치한 하버드대학교에 방문연구원으로 가면서 비교사적으로 시야를 넓힐 기회를 얻었다. 여기에서 특히 주목하게 된 것은 민병(militia)이었다. 보스턴과 그 주변 지역은 미국 독립전쟁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던 민병대와 관련한 역사를 지녔다. 미국의 민병제는 이후에도 주 단위 군사력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했으며 주방위군으로 이어져 오늘날 미군의 한 축을 이루고 있기도 하다.

민병제에 대한 인식은 조선시대 군제에서 나타난 여러 현상을 체제 자체의 본질적 특성이라는 관점에서 살펴보려는 시도로 이어졌다. 여기에서 초점이 된 것은 일반 백성과 군사적 의무를 수행하는 이들이 구분되지 않고 훈련이나 무장 등에서 구성원에 의한 자체적 운영을 상당 부분 기대하는 조선의 군사구조, 곧 병농일치 체제였다. 민병제로 분류할 수 있는 이러한 군사체제가 군사사에서 흔히 상정되는 상비군 중심의 근대적·현대적 군대로의 지향

및 변화와 차이를 지니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그 역시 광범위하게 존재해 왔던 보편적 군제의 한 형태이다. 이에 조선시대 군제를 보편적 군제의 한 구조로 이해하고 근대적 군대로의 단선적 이행과 실패가 아닌 다른 형태의 체제 구축과 유지라는 관점에서 재구성해 보고자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험은 구체적인 주제를 선정하는 과정에도 영향을 미쳤다. 일반적인 육군 보병으로 복무한 경험은 가장 일반적인 군대란 무엇인가라는 관심으로, 이후 지방군에 관한 관심으로 이어졌다. 왕조국가에서 중앙군이 가지는 중요성이 상당했던 것은 분명하지만 더 많은 지역과 인구를 포괄하는 조직, 곧 당대 사회의 보다 더욱 일반적인 제도를 보고자 했다. 이러한 연구 지향은 연구사의 흐름과도 맞았다. 조선 후기 군사사에 관한 다양한 연구가 축적되어 많은 부분이 규명되었으나 지방군에 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소략했고 지방군을 구성하는 개별 병종에 관한 구체적 연구도 부족했다.

그러한 상황에서 주목한 것이 속오군이었다. 속오군은 지방군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조선 후기 지방군을 논할 때 빠짐없이 언급되는 대상이었다. 그럼에도 지방군에 관한 관심 자체가 저조한 상황에서 속오군 자체에 관한 관심이 강하게 이어지지는 않았다. 이에 따라 가장 큰 덩어리인 속오군을 필자의 관점에서 다시 재구성하고 그 위에 후속 연구를 쌓아 올리는 것이 순서에 맞다고 판단했다. 이렇게 하여 속오군을 주제로 삼고, 체제의 문란과 붕괴라는 인식을 넘어 운영의 많은 부분을 위임하는 민병제와 병농일치라는 시각에서, 그리고 노역과 훈련과 전시 투입이 결합된 복합적 목적의 인력 동원구조라는 측면에서 바라보는 관점을 구성했다. 이를 통해 박사논문 작성에 착수하게 되었다.

3. 방법론 구축과 자료 분석

주제와 관점을 뒷받침할 방법론은 어떤 자료를 수집하고 어떻게 분석할 것인지를 문제로 이어졌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궁극적으로 군사사를 통해 국가와 사회의 문제에 접근하고자 하는 입장에서 필자는 사회사의 연구방법을 따르고자 했다. 이는 수량적·통계적 자료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점은 살펴보려는 대상이 지방이라는 점에서 더욱 중요했다. 연대기 자료는 주로 중앙의 상황을 중심으로 기록되어 기층 지방의 실태를 설명하는 데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우선적으로 주목한 것은 군사들의 신상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들이었다.

가장 먼저 살펴본 것은 군적이다. 현존하는 군적 자료는 많지 않으나 제주도에서 발견된 17세기 군적 『濟州東伍軍籍簿』나 19세기 군적 『大靜郡軍兵都案』은 이미 영인·간행되었고 이를 활용한 선행 연구도 존재한다. 그 외에 따로 영인되지는 않았지만 16세기 말 평안도의 군적, 17세기 충청도 군적, 18세기 말 경상도 하동의 東伍保 군적 등이 존재한다.¹⁾ 필자는 이를 직접 통계 데이터로 구축해 살펴본다면 추가로 확인할 수 있는 바가 있으리라 보았다. 이에 따라 주로 엑셀을 사용해 군적에 기재된 편제와 개별 대원들의 신상 데이터를 전산화하고 편성에 작동한 기준이 무엇이었는

1) 『濟州東伍軍籍簿』와 『大靜郡軍兵都案』은 제주대학교, 그리고 제주교육박물관에서 각각 영인 간행했으며 평안도 군적인 「鎭管官兵容貌冊」과 「鎭管官兵編伍冊」은 『西厓全書』에 수록되어 함께 영인되었다. 17세기 충청도 군적인 「肅宗代 忠淸道 東伍軍籍」 및 하동 군적인 「河東府東伍軍兵保人戊午式改都案」은 따로 영인되지 않았으나 각각 소장처인 토지주택박물관과 규장각한국학연구원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지, 각 지역 출신이 단위부대 안에 어떠한 방식으로 분포했는지에 집중해 분석했다.

그중에서도 가장 집중한 것은 제주도 군적이었다. 이는 조선 후기 수량 데이터를 담고 있는 자료 가운데 높은 가치를 지니는 호적과 연결할 수 있다는 점 때문이었다. 제주도에 18세기 말에서 19세기에 이르는 기간 동안 여러 마을의 호적중초가 남아 있다.²⁾ 그 가운데 대정군에 귀속된 사계리, 중문리 등 여러 마을의 호적은 앞서 언급한 『대정군군병도안』과 시기와 지역이 겹치는 만큼 양자의 정보를 연결해 얻을 바가 많으리라 기대했다. 분석은 18세기 말부터 20세기 초까지 장기간에 걸쳐 각 마을 구성원의 가계를 연결하고 군적에 등장한 인원들을 그 안에서 찾아 그들의 가계 흐름을 추적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그러나 당초 기대와 달리 이러한 수량적 분석이 곧바로 논문의 완성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데이터에서 특정한 패턴이 확인되지 않은 것은 아니었다. 다만 선행 연구에서 해당 자료들에 대한 기초적 검토를 이미 수행한 상황에서 단편적 검토와 그에 따라 확인되는 파편적 현상만으로는 박사논문의 핵심적 내용으로 할 정도로 기존 연구와 다른 사실을 밝혀내기 어려웠다. 실제로 자료 입력과 분석에 여러 해에 걸쳐 시간을 투입했지만, 결과적으로 박사논문에 직접 활용된 분량은 많지 않았다. 확인되는 현상을 해석하고 그에 적절한 의미를 부여하는 과정에서도 오랜 시간이 소요되었다.

그럼에도 이 과정에서 거두게 된 성과가 있었다. 무엇보다 연대기 자료의 서술을 다르게 이해할 근거를 얻었다. 제주도라는 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할 필요는 있으나 군적과 호적 양쪽에서 교차 검증되는 인원의 비율이 상당하다는 사실은 당대 기록에 자주 등장

2) 사계리, 덕수리, 하원리의 호적중초는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및 규장각한국학연구원에서 영인되었다. 그 외 여러 마을의 호적 자료 이미지는 지도교수인 김건태 선생님을 통해 확보할 수 있었다.

하는 군역의 허구성 문제를 재인식하게 했다. 문학적 수사 너머에 다른 현실이 존재하고 있었다. 보다 더욱 중요한 점은 교차 검증 되는 비율이 군역의 종류에 따라 달랐다는 점이다. 물리적 의무를 대신해 군포를 납부하는 이들과 실제 동원이 전제된 이들 사이에 차이가 확인되었다. 이는 실제 동원을 위한 국가적 구조가 어떻게 유효하게 지속되고 있었는가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졌다.

제주도 자료에서 얻은 성과와 그 과정에서 확인한 한계에 따라 분석 자료를 확장하게 되었다. 제주도 외 지역의 군적도 같은 방식으로 정리·분석했고 나아가 다른 지역의 호적을 살펴보았다. 단성·대구·울산의 호적은 이미 전산화되어 있어 그대로 활용할 수 있었으며 이 과정에서 해당 자료에 관한 선행 연구를 통해 자료의 인식과 분석에 도움을 받았다.

그 밖에 여러 지방 문서도 참조했다. 이 자료들은 처음에는 초서를 공부하기 위한 자료로 찾은 것이었으나 오히려 그 내용이 더 큰 도움이 되었다. 특히 주목한 것은 재정과 관련된 문서들로 상주, 대구, 임실, 김천 등 여러 지방 군현의 事例 문서가 크게 유효했다. 그 밖에 각종 所志와 행정문서, 『임실현세책』과 같은 호포제 문서 역시 주제와 관련된 여러 제반 요소를 탐구하고 시대를 이해하는 계기가 되었다.³⁾

지방의 여러 문서를 살피는 과정은 기본적으로 불확실한 작업이었다. 각 문서가 필요한 내용을 담고 있을지 확신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자료의 상당수가 전산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엇이 논문에 도움이 될지는 실제로 읽고 해석하기 전까지 알 수 없었고 필요한 내용이 나왔다 해도 각각의 분량은 많지 않았다. 이러한 자료의 가장 큰 특징은 파편적이라는 점이었다. 기대가 실망으로

3) 『大邱府事例』나 『商山邑例』 및 기타 여러 행정문서 등의 자료 대부분은 장서각과 규장각한국학연구원에서 제공하는 디지털 이미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바뀌는 일을 거듭하면서도 여러 지역의 문서들을 무작위로 선택하면서 읽어 내려가야 했다.

그렇지만 장기간에 걸쳐 자료를 살펴본 결과 이 파편적 기록들을 통해 속오군 운영의 실체를 추적할 수 있었다. 특히 재정 문서에 대한 분석은 박사논문에 중요한 영감을 주었다. 예산이 기록되어 있다고 해서 해당 문서가 작성된 시점에 반드시 집행한 것도 아니었고 반대로 기록되어 있지 않다고 해서 당대 구조에서 해당 예산이 마련되는 길이 없던 것도 아니었다. 이는 중간 비용과 행정과정을 하위 단계에 위임하거나 전가하는 당대 사회의 운영 원리를 보여주는 것이었다. 운영의 많은 부분을 하위 단위에 위임한 속오군의 구조를 이해하는 실마리도 여기에서 얻을 수 있었다.

연구방법을 정하고 자료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끝까지 고민된 것은 개별적으로 확인되는 파편적 사실들에 어떻게 의미를 부여할 것인가의 문제였다. 결국 전체를 엮어 낼 줄거리와 틀이 필요했다. 이 대목에서 특히 지도교수님인 김건태 선생님과 함께 손병규 선생님, 노영구 선생님, 김경숙 선생님, 허태구 선생님의 많은 도움이 있었다. 또한 개별 자료에 대한 해석과 의미 확인 과정에서 爾雅書室의 최원정 선생님께 커다란 도움을 받았다. 수많은 도움에도 불구하고 박사논문에서는 필자의 부족함으로 의도한 바를 온전히 구현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 이는 후속 연구를 통해 보완해 나가야 할 사항이다.

4. 차후 연구 방향

박사논문을 통해 속오군에 관한 연구를 일차적으로 수행한 만큼 이후로는 필자가 군사사 연구를 통해 이루고자 했던 바를 향해 나

아가고자 한다.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궁극적인 목표는 군사사를 통해 확인되는 당대 국가와 사회의 운영 원리를 전체적으로 조망하는 것이다. 특히 여기에서 국가가 인력을 어떻게 확보하고 운영했는지의 문제를 축으로 삼고자 한다. 군대를 국가가 보유하고 필요에 따라 활용할 수 있는 인력집단으로 해석하는 것은 군사사를 전쟁의 영역 너머로 확장하며 국가와 백성의 관계를 폭넓게 조망하는 방법이다. 비교사적 연구를 통해 세계사적 관점에서 조선시대 군사사에 의미를 부여하는 작업 또한 장기적으로 추구하고자 한다.

다만 박사논문에서 속오군을 다룰 필요가 있었던 것처럼 앞서 해결해야 할 과제가 아직 남아 있다. 지방군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속오군을 살펴본 만큼 이어서 牙兵과 馬兵, 吏奴作隊 등 개별 병종들에 관한 추가적 연구가 필요하다. 이들 병종 가운데는 기존에 연구가 축적된 경우도 있고 거의 다루어지지 않은 경우도 있으나 전반적으로는 연구 자체가 충분하지 않으며 전체 맥락을 필자의 관점과 방법을 통해 다시 살펴야 할 필요도 있다. 이러한 개별 연구를 쌓아 당대의 군대 운영방식을 규명하고 궁극적으로는 조선시대의 군대를 전체적으로 조망하고자 한다.

당장 진행하고 있는 주제는 대내적으로 기능하는 군대, 즉 경찰력으로서의 군대이다. 박사논문에서 밝혔던바 속오군은 명백히 대규모 전쟁을 위한 군대였고 그 운영 구조상 내부 치안 문제에 활용될 수 있는 영역은 제한적이었다. 하지만 당대의 군대는 근본적으로 대외적 방비와 내부적 통제를 결합한 복합적 기능을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치안 기능을 담당한 여러 군사적 기구와 제도에 대한 분석을 통해 당대 군대의 의미와 역할을 보다 분명히 드러낼 필요가 있다. 이는 본 박사학위논문에서 미처 다루지 못했던 부분이자 앞으로 필자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다.